

제이유, 정치권에 '보험성' 로비

검찰 "장관출신 등 4~5명 연루" 계좌추적 대상 대폭 확대키로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과 검찰 측 인사에 이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소문과 의혹으로만 떠돌던 정치인들 상대로 한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상당부분 사실을 기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가 29일 "두 명 이상의 정치인이 제이유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이미 상당 부분 혐의점을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은 제이유그룹 선출 명단과 로비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 장관 및 국회의원을 지낸 A씨와 현역 의원 B씨 등을 포함해 적어도 4~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 28일부터 대검 계좌추적반이 투입되면서 제이유그룹 관련 사안에 대한 계좌추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앞으로 급피치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유 계열사의 핵심 로비스트로 떠오른 한 의상(45)씨와 강모(여·46)씨를 출구금지 조치

해 둔 것도 로비 의혹 수사의 핵심에 이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한 검찰의 의중을 읽을 수 있게 한다.

한씨는 이미 구속된 정승호 총경에게 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네고 박모 차안감과 서울 모 지검 차장 검사의 누나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씨는 검찰 출신 이재순 청와대 사정비서관 가족과 친분을 쌓아 이 비서관 부인의 오피스텔을 1억7천만원에 사기도 했으며 서해유전 사업에 개입한 서울 모 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주수도 회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들을 여러번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로비 의혹은 국정원 보고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청와대 비서관 및 검찰 간부의 가족, 경찰 간부 등에 대한 금전 거래 외에 정치인으로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철저한 계좌 추적을 통해 실제로 정치인 몇 명에게 얼마의 로비 자금이 건네졌고 이를 통해 제이유 측이 어떤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이유그룹 사건 광주·전남 피해자 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볼스홀딩스'(Bulls Holdings). 로고 아래에 '제이유그룹'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볼스홀딩스'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옥중 지시를 받아 다단계 및 방문판매 영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볼스홀딩스' 영업중... 신고자 없어

'제이유'그룹 사기사건 피해자가 사상 최대인 3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사·도민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이유'그룹이 광주에 지사를 만들고 1년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제이유'그룹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교원공제조합 건너편에 '제이유 광주지사'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다, 지난 7월 주수도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자 임시 철수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이 곳은 '볼스홀딩스'(Bulls Holdings)라고 간판을 바꿔 단 채 영업을 재개했고, 현재까지 성업 중이다. '볼스홀딩스'는 '제이유'그룹 회원들이 '제이유'그룹 전국사업자협회'가 설립했으며, 주수

도 회장의 옥중 지시를 받아 다단계 및 방문 판매 영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은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을 통해 '제이유'그룹 사건을 접한 피해자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직접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때 지역에도 다단계 열풍이 불었던 만큼 '제이유'그룹의 유혹에 빠졌던 지역민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볼스홀딩스'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주수도 회장 옥중서 경영·재산은닉 총지휘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구축한 인맥을 방패로 삼아 34만명에게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이유그룹 주수도(50) 회장이 올해 7월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그룹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 회장은 사기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회사 공금을 직원 도피자금으로 활용토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다.

제이유 사업피해자 A씨는 29일 "주 회장이

현재 영업을 중단된 제이유백화점의 뒤를 이어 설립한 볼스홀딩스 매출액을 빼돌려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회사 관계자의 도피자금으로 쓸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계열사 회장 박모씨 앞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강화도에 레저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제이유 개발의 모든 권한을 인계하는 것을 총 지휘하고 있다. 이는 재산을 빼돌려 강제 집행을 면하려는 의도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학교로 간 오페라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소프라노 조수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 중 한 명이다. 그림 조수미 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어떤 걸까. 아마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아닐까 싶다.

'사람이 내는 소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음역의 이 노래는 CF 등에도 많이 쓰여 오페라 문화에도 한층쯤은 들어본 곡이다.

11월 중순 광주 시내 한 여자중학교에서 '마술피리' 공연이 열렸다. (사)빛소리오페라단이 선보인 이번 작품은 세트와 조명은 단출했지만 분장과 의상 등을 제대로 갖춘 성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으며 해설과 자막도 곁들여졌다.

아쉬웠던 건 학생들의 관람 태도였다. 뒷쪽에 앉은 아이들은 매우 소란스러웠지만 적절히 통제하는 교사도 없었다. 물론 요즘 여중생들이 '오페라' 공연을 따분해 하는 건 당연하다. 비나 세븐같은 인기 가수가 무대에 올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노래가 있었다. 바로 '밤의 여왕의 아리아'였다. 익숙한 음률에 아이들은 집중했고 가장 많은 박수가 터져나왔음은 물론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몇 주 전에 예고된 프로그램이었을 텐데 음악시간 등을 통해 미리 '마술피리' 공연 실황이나 음악을 들려줘 곡과 좀 더 친숙했다면 아이들이 훨씬 즐겁게 감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3년째 전국의 학교를 방문, 공연을 펼치고 있는 오페라단 관계자는 좀 더 좋은 관람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미리 작품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훨씬 효과가 커질텐데 그런 배려를 하는 학교가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몇년 전 각 학교에서 공연을 가졌던 한 음악인은 가장 힘들었던 게 학교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었다고 한다. "공부는 안 시키고 아이들 바깥 놀거나"며 항의하는 학부모 때문에 학교측에서 선택 '우리 학교로 와 달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공연 애호가들은 아예 수행평가 때문에 공연장을 찾는 학생들을 받지 않았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공연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행여 '의무적으로' 온 학생 중 단 몇명이라도 감동을 받고 돌아간다면 그 감동이 아이는 물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 때문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은 '체계적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공연자의 의무라면, 아이들이 좀 더 공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건 교사들의 의무요, 문화 세례를 흠뻑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이들의 의무다.

/mekim@kwangju.co.kr

한가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 연말연시무임
- 돌잔치
- 상견례
- 고희연
- 각종세미나/세미나 연회장 차임

12인실 지정무임

영역별 노후필기회 특수비법으로 초4부터 중3과정까지 12개월 완성!
수학을 못하는 것은 100% 선생님 책임!!

꽃재만 **꽃재** 푸는 수학공부 절대 시키지 마라!

왜? **왜?**

모양생(논문수학) 저지해강 프로그래밍?

378-3888 574-4422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를 1대로

렌탈 (보증금, 보험료, 3개월)

955-4222 090-701-7117